

Supplement 2. Group Discussion Topic

주제	질문
원칙과 융통성	<p>- '원칙', '융통성'에 대한 정의를 조원들의 언어로 재해석해보자.</p> <p>- 원칙을 너무 고집하여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, 융통성을 지나치게 많이 발휘하여 정당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다. <원칙과 융통성> 수업에서 제시된, 아래 사례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원칙과 융통성에 대해 토론한 후, 조원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자.</p> <p>■ 사례 1) 대학 졸업학점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 미리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취업하였다. 그러나 마지막 학기 과목 중 한 과목에서 F성적을 받았다.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하여, 이 학생은 평생 꿈꿔오던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졌다. 담당 교수님은 성적을 수정해 줄 수 없다고 하신다.</p> <p>■ 사례 2) 학기말의 성적 정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에서 아주 작은 점수가 모자라서, 담당교수님에게 성적 정정을 부탁드립니다. 담당 교수님은 어떤 경우에 수정해야 하고, 어떤 경우에 수정하지 않아야 하는가?</p> <p>- 다음 2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? ① 조원들과 원칙과 융통성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직·간접적인 경험에 대해 서로 나누어보자. ② 향후 의료 활동에 있어서도 의학 전문가로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. 어떤 자세와 태도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, 상황에 맞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프로페셔널리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토론하여 조원들의 생각을 정리해보자.</p>
치료적 공감	<p>- '공감'과 '치료적 공감'에 대한 정의를 조원들의 언어로 재해석해보자.</p> <p>-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근거를 제시해, 자신의 진료 가치관과 그에 따른 장·단점에 대해서 토론해보자. 6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의료실태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, 1차 의료기관 의사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48초(방글라데시)에서 23분(스웨덴) 등 다음과 같았다(한국경제TV, 2017.11.12).</p> <p>현실적으로 의사는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야 한다. 그렇다면,</p> <p>■ 의사가 진료를 할 때, 치료적 공감행동을 하면서, 1인당 10분 이상의 진료를 하고, 이를 통해 비록 환자의 수는 줄어들더라도,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?</p> <p>■ 아니면, 치료적 공감행동을 제한함으로써 1인당 5분 전후의 진료를 하고,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?</p> <p>- 미래에 더불어 살아갈 의사로서 임상에서 치료적 공감을 적용하고자 할 때,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구성한다면,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?</p> <p>조별 논의를 통해 ①보편적 의료지침 기준을 설정하여, ②조별로 3개~5개 정도의 <치료적 공감> 지침 리스트를 만들어보자.</p>

- 고정관념 - '고정관념'에 대한 정의를 조원들의 언어로 재해석 해보자.
-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? ① 사람들이 고정관념, 선입견, 편견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, ②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보자. ③ 각각 그들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담론해보자.
 - 의료 환경에서 고정관념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1가지를 설정해서(의사-환자 또는 동료-동료) 상황을 설명하고, 그 해결책을 제시해보자.
 - 미래에 더불어 살아갈 의사로서 임상에서 고정관념에서 최대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. 논의를 통해 개인별, 조직별로 필요한 노력에 관해 담론해보자.
-